

“강진 발전은 내가 책임”...민주·평화당 ‘한판 승부’

강진군수

강진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원 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서 민주당 후보 군들의 불꽃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 지역구인데다, 황 의원이 재선의 강진군수를 역임하는 등 사실상 황 의원의 정치기반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평화당 양당 간 본선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후보군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원(58) 현 군수와 이승욱(61) 전 여수 부시장, 장경록(61) 전 강진읍장 등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화당 후보로는 광영체(71) 전남도의원만이 출마해 대항마가 없을 경우 무난하게 본선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고시(31회) 출신인 강 군수는 23년간 중앙부처와 전남도청의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국비와 도비 확보액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군예산이 4000억원 시대를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임기간 안정적인 군정운영으로 2018년 한국지방자치협회의 행정안전부



강진원 군수



이승욱 전 부시장



장경록 전 읍장



곽영체 도의원

민주 강진원·이승욱·장경록 3파전 평화당 후보 곽영체 도의원만 출마

가 진행한 ‘농어촌 단체장 역량 만족도 1위’ 오르기도 했다. 또한, 마령농도시장개발, 가우도 명품 섬 개발,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강진을 관광 메카로 발돋움 시킨 성과도 돋보인다는 평이다.

강 군수는 올해도 연속성 있는 군정으로 지역발전의 기폭제 될 핵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포부로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승욱 전 여수부시장은 강진군에서 공직을 시작, 전남도청 행정자치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을 지내는 등 35년간의 풍부한

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퇴임 후 곧바로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의견 소통에 나서는 등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군수 출마를 위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고, 전남도당 농수산특별위원직을 맡아 당내 입지도 다지고 있다. 이 전 부시장은 강진 산업단지 등 지역 내 기업유치와 농가공 유통을 포함한 6차 농수산분야 적극 육성, 힐링산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체류형 관광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장경록 전 강진읍장은 토박이 군정 공직

자 출신이다. 1974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건설과장, 기획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치며 40년 공직경험을 통해 지역행정은 ‘내가 책임자’라고 토박이 행정을 내세우고 있다.

장 읍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진원 현 군수에게 패한 경험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강 군수와 이 부시장을 상대로 버거운 경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이다. 그는 농업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과 귀농인들이 찾는 강진으로 만들어 인구 감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당 소속으로 군수 도전에 나서는 곽영체 도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전남도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완도교육장과 강진교육장을 지내며 40년 교육행정의 풍부한 경험과 8년의 의정을 아우르는 관록이 두드러진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으로 민원현장을 누비며 대민접촉을 많이 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관내 거점고등학교 육성 등 교육예산 교부금지원에 대한 공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교육자 재직 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든든한 정치기반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후보 4명 모두 관료 출신...행정 전문가 자임

출신지·학연 등이 변수될 듯 민주 경선 강진읍 표심 좌우

강진군수 도전자 4명 모두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강진원 군수, 이승욱 전 부시장, 장경록 전 읍장 등은 민주당 소속으로 모두 행정관료 출신이다. 평화당 곽영체 도의원은 교육 관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모두가 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종 교부세 등 군 예산을 많이 가져와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적임자를 찾는 분위기다.

그동안 무소속이었던 강진원 군수가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당 지지율과 더불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 역시 강 군수 못지 않게 당 지지율과 함께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어 민주당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지역 선거인 만큼 각 후보들의 출신지와 학연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진원 군수는 작전면, 이승욱 전 부시장은 군동면, 장경록 전 읍장은 신전면이다. 그러나 인구의 약 40%가 집중돼 있는 강진읍 출신이 없어 최대 승부처인 강진읍 표심 선점이 경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평화당의 한판 승부도 관련 포인트다. 평화당에서 대항마로 내세운 곽영체 도의원은 강진읍을 포함한 4개 읍·면(제 1선거구)에서 재선 도의원을 지내며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제선거인 수 약 3만2220명 가운데 2만2340명으로 제 2선거구보다 인구가 7870여명이 많다.

여기에 평화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민주당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곽 도의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 2선거구 공략과 고령인 나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번 선거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3선 가도 현군수에 전 조합장·군의장 등 도전

함평군수

함평군수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안병호(71) 현 군수에 맞서 4명의 후보군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후보들간 조합장 이력과 의정 경험 등 주요경력이 겹쳐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군수에 맞서 4선 농업조합장을 지낸 윤한수(62) 전 나비골농협 조합장과 박래옥(71) 전 전남도의원 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후보는 일찌감치 민주당 경선 완주를 표명하면서 군수 선거전보다 당내 경선이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후보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긴 노두근(65) 전 강진부군수와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옮겨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윤행(52) 함평군의회 의장이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안병호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과 조직력이 강점이다. 3선 축합 조합장 출신으로 축산 농가의 지지기반이 두텁다. 안 군수 측은 “아직 경선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하면 승리는 무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병호 군수



박래옥 전 도의원



윤한수 전 조합장



노두근 전 부군수



이윤행 군의장

민주당 안병호·윤한수·박래옥 당내 경선 바른미래당 노두근·평화당 이윤행 출사표

안 군수의 최대 성과는 ‘부채 제로 함평’을 실현한 것이다. 지방채 조기상환은 그의 군정철학인 실사구시에 기반한 효율적 재정운영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윤한수 전 나비골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장직을 조기 사퇴한 뒤 군수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4선 조합장으로 지역 곳곳을 누빈데다, 한 발 앞선 도전으로 상대 후보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전 조합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3만4000여명에 달하는 함평군 인구를 군

수 임기내 5만명으로 늘려 군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잘 사는 함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래옥 전 전남도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과 조합장을 지낸 경험 등 풍부한 경력이 강점이다. 특히 민주당 함평 지역 부위원장을 거쳐 당 공천도에서 어느 후보보다 앞선다고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긴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는 지난 선거 패배의 경험을 씻어내기 위해 설욕을 버르고 있다. 노 전 부군수는 이번이 두번째 군

수 선거 도전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노 전 부군수는 1973년 나산면에서 공직을 시작해 함평과 강진군, 전남도청 등에서 40여년 간 근무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함평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간판을 달고 군수 선거에 나서는 이윤행 함평군의회 의장은 젊은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이 의장은 최근 이승동 함평군산림조합장이 군수 출마를 접으면서 이 조합장의 조직력과 문종의 지지를 끌어안게 돼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kwangju.co.kr

*사진은 현직·정당·무소속·가나다順

민주당 후보 누구?...본선보다 경선 관심

출판기념회 등 조기과열 양상 지역구 국회의원 영향 클 듯

함평지역은 군수 선거 본선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더 관심이다.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노두근 전 강진부군수와 이윤행 함평군의회 의장이 각각 공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본선 대진표는 나온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선을 앞두고 후보군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조직력을 과시하는 등 조기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안병호 군수와 윤한수 전 조합장, 박래옥 전 도의원은 지역 농·축협 조합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안 군수는 함평축협 6·7·8대 조합장, 윤 전 조합장은 4선 나비골농협조합장, 박 전 도의원은 해보농협 7·8대 조합장

을 지냈다. 안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과 축산 농가의 조직력이 강점이다. 윤 전 조합장은 3개면 조합장을 지내 농민조합원들의 표심을 기대하고 있고, 박 전 도의원은 오랜 당 활동의 정점을 내세워 당원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은 농촌 사정에 밝고 서로를 잘 알고 있어, 함평 농정에 대한 정책 대결과 조직력 싸움으로 경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주·전남 유일의 민주당 소속인 이개호 의원이어서 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이 의원의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특정 후보에게 무게 중심이 쏠릴 경우 역풍에 가까운 경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kwangju.co.kr

원마모집 중

아이가 행복한 광산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 ☺ 지역 공공보육 첫 걸음 **광산구립어린이집**
 접수 3월 2일 ~ 3월 20일
 대상 만 0~5세 영유아 36명
 방법 전화 신청 → 1차 전화상담 → 2차 면접 후 선정
 위치 수완지구 신원마을 휴먼시아6단지 아파트 관리동
 보육시간 평일 07:30 ~ 19:30 / 토 07:30 ~ 15:30 * 시간 연장반 운영
 문의 여성보육과 062-960-8330, 8370 / 010-9622-6696

- ☺ 0세에서 100세까지 행복한 그림책 특화 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운영 평일 09:00 ~ 18:00 / 주말 09:00 ~ 17:00 * 둘째, 넷째 월요일 휴관
 소개 그림책 전시, 팝업그림책 만들기, 책 읽어주는 방 운영, 작가의방, 북아트 전시,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문의 이야기꽃도서관 062-960-6811

- ☺ 청소년의 외침이 있는 인문사유예술공간 **야호센터**
 운영 화~토 09:00 ~ 21:00 / 일 09:00 ~ 17:00
 소개 밴드실·댄스실·노래실·조리실·그림책&보드게임방·예술작업실·동아리방
 ·책놀이터 등 운영,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상상발전', 마을예술가 만들기 프로젝트 12씨 등
 문의 야호센터 062-960-6980